

## 2021년 제4차 교육문화분과 회의록

<b>일 시</b>	2021. 4. 16.(금) 10:00 ~ 12:00	<b>작성</b>	임복희	
<b>장 소</b>	ZOOM 화상회의			
<b>참석자</b>	<b>총 15명 중 13명 참석</b>			
	김성중(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	송종백(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
	변선옥(평실사협회 이사)	○	안치범(서수원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팀장)	○
	김승영(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오경수(수원시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팀장)	○
	고성준(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장)	○	유지선(팔달노인복지관 팀장)	○
	김미연(연무사회복지관 과장)	○	유현성(수원체육문화센터 부장)	○
	김은정(수원평생교육사협회 사무차장)	○	임국희(수원YWCA 간사)	○
	박설희(수원민예총 지부장)	○	장범준(도서관정책과 정책팀장)	-
	박은정(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팀장)	○	임복희(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
	※ 간담회 : 유인숙, 박선경 외 3명 참석			
<b>회의 결과</b>	<b>1. 수원시 교육문화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간담회</b> - 정책제안 내용 (발표 : 김미연 위원)			
	① 경기도 31개 시군 기준으로 1인당 평생교육 평균 예산액 확충 ② 평생학습 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과 단위 평생학습부서 설치 ③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동아리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④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의 간극이 더 벌어져가고 있는 장애인의 디지털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추진 ⑤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되어 있으나 예산 미확인, 공유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사업 실시			
<b>회의 결과</b>	<b>- 전문가 토론</b>			
	① 유인숙 평실사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사업 확대와 예산 확충, 평생교육 전담부서 확대 및 전문인력 확대 배치,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조직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시민학습 조직지원센터 설치, 주민 생활권 중심의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필요</li> <li>· 성남시의 경우 중앙평생학습과 6개 거점별 평생학습관 설치 계획. 생활권역 평생학습관 체계 구축 예정</li> </ul> ② 박선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와 지역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체 및 평생학습 단체 연합하여 단계별 증액 제안 필요</li> <li>· 수원시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구심체로서 과 설치 및 팀 증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현 활동, 필요 활동 등 구체적 제시를 통해 단계별 추진을 위한 실행력 담보 필요</li> <li>· 종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인프라 구축</li> <li>·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이 아닌 생활 속 시민교육 확산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비전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전개 필요</li> </ul> <p>○ 질의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 동 평생학습지원센터와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의 차이 A 김포시 12개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평생학습팀에서 관할. 전국적으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환하고 있으며 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하고 있음.</li> <li>· Q 평생학습 관련 시민욕구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A 시군구별 자료는 쉽지 않으나 경기도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존재</li> <li>· Q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문화분과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 A (유인숙) 실무분과 위원의 마음가짐과 인식 중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시민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고 필요. 협의체가 민관 거버넌스기구이므로 민-관 사이에서 역할 기대. 실무분과 위원의 운동성 필요. 정적인 고요함을 벗어나 역동성을 더해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가능함. 분과 위원부터 시민을 위해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인이라는 인식 중요 (박선경) 이번 분석 및 정책제안의 내용이 분과위원들의 훌륭한 작업물임. 예산분석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힘든 일을 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함. 평생교육의 시작은 정주의식과 애정에서 시작됨. 함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기고 수원지역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공동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성장하고 상호학습이 될 것임. 우리는 공공재로서 교육을 통해 기여하는 삶. 평생학습의 네 가지 기둥인 ‘삶을 위한 학습’, ‘행함을 위한 학습’, ‘더불어 삶을 위한 학습’, ‘존재를 위한 학습’.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고 논의한 내용을 실천과제로 정리하고 점검이 필요하며, 나,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를 위한 실천 활동을 응원함.</li> </ul> <p><b>2. 회의</b></p> <p>가. 5월 양육자 평생학습동아리 교육 : 단독방을 통한 조사후 추진</p>
--	---

	<p>나. 6월 예산분석 교육 : 차기 회의시 재 논의</p> <p><b>3. 차기회의</b> - 일시 : 2021. 5. 21.(금) 10:00</p>
<p>회의 사진</p>	